

느림과 휴식의 추상성과 구체성,

★ 글 | 표정훈

休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세상 만사에는 움직임과 멈춤, 펄과 움츠림, 나아감과 물러섬이 있다. 역사와 노동의 세계로 나아가 쉽없이 일하고 개척하는 생활이 있는가 하면, 자연이나 내면으로 침잠하여 휴식하고 관조하며 성찰하는 생활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생활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삶이란 가능하지 않다. 요컨대 한 사람의 삶은 동정(動靜), 출처(出處)의 갈마듭으로 이루어져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그 갈마듭의 리듬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즉 언제 어떻게 쉬고 언제 어떻게 일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책으로 볼 때 사회과학, 경제·경영, 처세서들이 움직임, 펄, 나아감에 해당한다면 명상, 웰빙, 느림, 관련 도서들은 멈춤, 움츠림, 물러섬에 해당한다. '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反者道之動)이라는 《노자》의 말도 있지만, 빠르게 움직이고 멀리 나아가갈 것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극에 달할 때 느리게 움직이거나 아예 멈춰볼 것을 권하는 추세가 유행한다. 예컨대 1980년대에는 사회과학 서적이 비교적 널리 읽히면서도, 대중적으로는 크리슈나무르티의 《삶의 진실에 대하여》까지, 《자기로부터의 혁명》범우사 등 안심입명(安心立命) 도서들이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이 시기의 느림과 휴식이란 구체적이고 체험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에 머물렀다.

그 추상성이 위태롭게 기댄 구체적(?) 터전은 인도였다. 크리슈나무르티와 라즈니쉬로 대표되는 인도 출신 명상가들이 누린 호경기 속에서, 인도는 가난해도 행복한 성자들이 득실대는 땅으로 신비화되었고 인도·명상 산업이 성황을 이루었다. 신흥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스타도 떠올랐으니, 무한 경쟁, 속도의 강박, 성취의 강박에 지친 사람들을 라즈니쉬, 인디언, 달라이 라마, 티벳, 인도, 탁났한 등과 만나게 해주고, '지구별 여행자'도 되어보고 '하늘 호수'로도 떠날 수 있게 해준 '류시화'라는 브랜드네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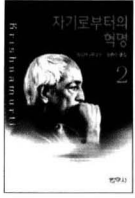
느림과 휴식의 추상성은 피에르 쌍소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동문선에서도 어느 정도 반복된다. 느리게 사는 지혜를 갖기 위해 피에르 쌍소가 제시한 '구체적인 삶의 태도' 들은, 한가로이 거닐어 볼 것, 신뢰하는 주변 사람의 말에 완전히 집중할 것, 권



태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를 것,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꿈을 일깨울 것, 가장 넓고 큰 가능성을 열어 두고 기다릴 것, 지나간 추억의 한 부분을 다시 떠올려 볼 것, 내면에서 조금씩 진실이 자라나도록 글쓰기를 할 것, 포도주라는 순수한 액체에 빠져볼 것, 절제보다는 절도를 가질 것 등이다.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것 같지만, 마음가짐 혹은 태도의 차원으로 환원시킨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이에 비한다면 로타르 J. 자이베르트와 베르너 퀴스텐마허의 《단순하게 살아라》김영사는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 도서로 보인다. 최근 서구사회 일각의 사회문화 트렌드라는 '자발적 단순함 voluntary simplicity' 을 기조로 하는 이 책은 마음가짐이나 태도의 차원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how)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컨대 서류나 옷장정리 방법은 물론이거니와 토막잠을 자는 편이 좀더 능률적이라는 조언을 비롯하여, 몸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걸 강조한다. '느리려 하지 말고 줄이고 비우고 감속하고 모든 것을 적게 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책은 그러나, 구체성을 획득한 대신 휴식과 느림의 철학 같은 것을 그 안에서 기대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쯤에서 철학자 김용석의 지적에 귀기울여 보자. 그에 따르



자기로부터의 혁명
범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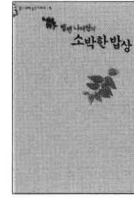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동문선



단순하게 살아라
김영사



조화로운 삶
보리



헬렌 니어링의 소박한 밥상
디자인하우스



스콧 니어링의 자서전
실천문학사

면 우리 사회에서 느림의 추구, 자연 회귀의 욕구, 단순성에의 동경 등과 연관된 문화생산은 외국인들의 몫이었다. 서양의 논리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대안적 모색으로 동양적 사유를 끌어왔지만, 이의 텍스트는 다시 서양의 논리로 차용하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나아가 단순함, 느림, 휴식 등이 제멋대로 해도 해고될 염려가 없는 부류의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그런 덕목을 주장하려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느림을 향유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문화·사회·경제·정치 전반에 걸친 조건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화로운 삶》보리, 《헬렌 니어링의 소박한 밥상》디자인하우스, 《스콧 니어링 자서전》실천문학사 등 일련의 책을 통해 우리 독서계에서 인기 주제가 된 스콧 니어링과 헬렌 니어링 부부. 그들만 해도 학식과 명망을 갖추고 강연과 인세수입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았는가?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들 부부의 삶은 '책에서나 접할 수 있는' 삶이다.

요약하면 지금까지 느림과 휴식에 관한 책들 대부분은 대략 이런 기조를 보여줬던 게 아닐까? '자기 안으로 침잠하라.' '문제는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살았던 혹은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단순해질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다.' 무엇이 빠져 있을까? 느림과 휴식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빠져 있다__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이 빠져 있다. 복잡한 현실을 짐짓 단순화시키고 더럽고 잘못된 현실을 짐짓 아름답게 꾸며서 그럴 듯하게 정리해 놓은 거짓된 현실 인식, 요컨대 허위의식의 혐의도 짙다. 어떤 목표가 모종의 장애로 저지될 때, 그 목표와 비슷한 책을 읽음으로써 처음에 가졌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독서, 요컨대 '대리만족 독서'의 혐의도 보인다.

허위의식과 대리만족 독서에 부응하는 느림과 휴식 관련 책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나올 것이며 꾸준한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출판기획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허위의식과 대리만족 독서를 더욱 크게 조장할 수 있는 책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걸까? 적어도 상략濶略의 차원에서 그런 고민은 유효하며 그것을 질타할 수도 없다. 단, 추상성·관념성과 구체성·사회성, '무엇?' (what)이라는 본질 질문과 '어떻게?' (how)라는 방법 질문, 보편적인 주제로서의 느림 및 휴식과 특수한 우리 현실 속에서의 느림 및 휴식, 이렇게 상반돼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된 것이 아닐까? **이 글**

이 글을 쓴 표정훈은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

했다. 중국고전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책을 읽거나 번역하는 일을 한다. 지은

책으로는 《하룻밤에 읽는 동양사상》 《책은 나뉘는 운명을 지닌다》가 있고, 옮

긴 책으로 《중국의 자유전통》 《불사의 추구》 《맞춤인간이 오고 있다》 《타고난

지능, 만들어지는 지능》 등이 있다.